

당신이 만든 이미지로 대통령을 뽑고 있진 않습니까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황상민 전 교수 '대통령을 뽑는 한국인의 심리'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심리상태일까? 누구를, 어떤 사람을 뽑아야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

황상민 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대통령을 뽑는 한국인의 심리' 주제로 강의했다.

황 전 교수는 '대통령의 심리분석'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스타 심리학자다. 그는 이미지의 심리, 대중문화, 디지털 매체, 소비자행동, 사이버공간, 온라인게임,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과 통념'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연구에 주력해 왔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좋은 대통령을 기대하고 표를 준다. 실제로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가 높은 지지율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퇴임하는 순간 가장 낮은 지지율의 주인공이 되어 '나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떠난다”

좋은 대통령 기대하고 표 주지만

퇴임엔 '나쁜 대통령'으로 떠나

뽑아 놓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공약 실현 가능성 보고 선택을

그는 이날 강의에서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혹시 '성공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라고 인정받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질문에 대해 “인품, 공약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대중이 그 사람을 보는 이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했다.

이어 황 전 교수는 “대통령은 '이미지'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은 '연예인'과 같은 과다. 공약도 정책도 아닌 '이미지'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만으로 판단해 이미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특징인의 이미지를 모으면 그 사람이 현실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위기가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분명 같은 그림인데 토끼의 오른쪽 옆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오리의 왼쪽 옆 얼굴이 보이기도 하는 그림에 대해 주관적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특성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심리에도 적용된다. 어떤 정치인에게든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만 본다는 것이다.

황 전 교수는 결국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늘의 좋은 대통령이 내일은 나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며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나쁜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대통령 자신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뽑아놓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후보의 공약, 조건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황상민 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대통령을 뽑는 한국인의 심리'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뿐만 아니라 나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해줄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하므로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세대 심리학과 교

수를 지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1월 겸직 및 영리활동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연세대 측으로부터 교수직을 해임당한 상태다.

한편 그는 같은 해 1월 '김여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최

순실을 만났을 당시는 나이만 20대지 사실상 발달장애 상태에서 만난 것이다. (박 대통령의)실제 정신연령은 17~18세 정도고 더 이상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기자 e16621@kwangju.co.kr

“한·일 위안부 문제 재협상하라”

광주나비 시정앞서 수요집회

19대 대선 후보에 공개 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광주나비'는 5일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정기 수요집회를 열고 위안부 합의문제 등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한 뒤 한 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폐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새로운 조약과 협정 체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19대 대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들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 또는 폐기를 밝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 초 한일관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도 않고 원칙도 철자도 없이 굴욕적인 12·28 합의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외교침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각 당 후보들이 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광주나비' 회원들이 5일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정기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적외적인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길 바란다”면서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화해와 평등의 한일관계를 수립하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광주나비는 지난달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발족식을 하고 매일 첫째 주 수요일마다 정기 수요집회를 열어 일본

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한·일 양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으로 돌아갔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4일 한국 복귀 직후 “즉시라도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등 중요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일(위안부) 합의의 실시(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연합뉴스

檢, 오늘께 박근혜 구속 기간 연장키로

최순실 구치소 옮기고 우병우 오늘 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이번 주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구속 기간 연장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일단 지금으로선 가능하기 어렵다”면서도 “연장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산정해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만료(9일) 즈음에 주말과 휴일이 겹쳐 있어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중에는 검찰이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검찰은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할 수 있다.

검찰은 전남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1차 '육중조사'를 했고 6일 2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추가로 서니 차레 대면조사를 진행해 범죄 사실과 세부 혐의를 확

정한 뒤 4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기소 시점은 15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된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내일 중 다른 구치소로 옮겨진다. 법무부는 5일 “검찰의 이송 요청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6일 오전 중 서울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실 만료(9일) 즈음에 주말과 휴일이 겹쳐 있어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중에는 검찰이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검찰은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할 수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속 여부와 별도로 내달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인 이달 중순께 기소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초혼 연령 33세

40대 미혼율 20% 육박

광주·전남지역 남성의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연령은 약 33세이고 40대 미혼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로 본 광주·전남 남성의 모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남성 초혼 연령은 32.9세로 1990년 27.8세보다 5.1세나 많아졌다. 전남지역 남성 초혼 연령도 32.9세로 1990년 27.3세보다 5.6세 많아졌다.

2015년 광주 남성 미혼율은 30대 44.8%, 40대 16.4%, 50대 5.1%로 나타났다. 전남 남성 미혼율은 30대 46.2%, 40대 19.8%, 50대 7.5%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40대 남성 미혼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광주 남성 27.0%, 전남 남성 32.4%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답은 광주 남성 58.8%, 전남 남성 64.3%로 조사됐다.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광주 남성 60.2%, 전남 남성 56.2%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한 의류점 임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1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화정동 대지 967㎡ 신세계 백화점 부근 매 50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풍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증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